

석사학위논문

오피스의 조형원리를 적용한
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2019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곽 병 옥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황수민

옵아트와 조형원리를 적용한 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A study on Up-Style design applying the
principles of Op Art

2019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곽 병 옥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황수민

옵아트의 조형원리를 적용한 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A study on Up-Style design applying the
principles of Op Art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곽 병 옥

곽병옥의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6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옵아트의 조형원리를 적용한 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한 성 대 학 교 예 술 대 학 원
뷰 티 예 술 학 과
분 장 예 술 전 공
과 병 옥

인간은 동일한 대상이라도 인지하는 정도가 모두 다르며 또한 해석의 의미도 제각각이다. 불안정한 망막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정보는 이처럼 시각적 착오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적 착오를 착시라 하며 옵아트는 이러한 착시를 이용한 조형예술의 한 분야이다.

옵아트의 명칭은 옵티컬 아트(Optical Art)의 준말로 기하학적인 패턴을 바탕으로 대중의 시각적 착시를 일으키는 예술 분야이다.

1950년 말부터 바우하우스에서 시각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옵아트 발전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빅토르 바자렐리와 브리짓 라일리등 대표 작가들의 기하학적 추상과 시각적 착시를 통한 작품 활동으로 옵아트의 다양한 변화를 이끌었다.

옵아트 표현방법으로는 점, 선, 면의 기본적 조형요소를 대비, 반복, 점, 이, 방사등으로 완곡과 굴절 형태로 표현하며 시각적 착시를 일으킨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확인 된 옵아트만의 독특한 조형 요소를 단순성, 주목

성, 반복성, 확장성으로 구분하여 세세히 고찰 하였다.

업스타일은 격식과 품위를 요구하는 장소 또는 모임에서 여성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나타내는 헤어 디자인 예술의 한 분야이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업스타일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웨딩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한복 등 우아함을 나타내는 의복과 함께 디자인 되어 왔으며 간편한 차림에도 어울리는 세미 업스타일로도 활용되어 지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업스타일을 오피스의 조형 요소와 접목하기로 하였다. 우선, 업스타일을 디자인함에 있어 기본적 디자인 요소인 조화, 균형, 통일, 강조, 리듬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로서 조형예술의 두 분야인 오피스와 업스타일의 특징을 확인 하고 오피스의 기하학적인 패턴이 적용된 건축, 패션, 인테리어, 네일 분야에서 시지각적인 착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는 오피스의 시지각적 착시는 다양한 예술성을 창조하고 있으며 업스타일에도 더욱 풍부하고 독창적인 예술성을 제시 하리라 가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오피스의 조형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기하학적인 패턴을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이브닝 업스타일에 주목하고 예술적 가능성을 오피스 작품을 준비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째, 오피스의 조형적 요소인 단순성, 주목성, 반복성, 확장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대표 작가의 작품에서 그 모티브를 찾을 수 있었다.

둘째,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이브닝 업스타일에 오피스의 조형적 요소를 적용하여 작품제작을 시도 하였다.

셋째, 오피스의 조형적 요소를 바탕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하고 업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모양이 풍부하고 모발길이가 60cm 모델을 선정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오피스의 조형요소를 업스타일의 디자인 요소에 적용하여 업스타일만의 디자인을 제작하였고 여성의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이는

옵아트의 시지각적 예술이 헤어디자인 분야 중 이브닝 업스타일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었으며 이러한 디자인의 다양한 시도가 보다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예술적 가치로서도 재해석 될 수 있었음에 본 연구는 그 의의 둔다.

【주요어】 옵아트, 업스타일, 조형요소, 시지각적 착시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II. 옹아트의 이론적 배경	5
2.1 옹아트의 개념	5
2.2 옹아트의 조형 원리	8
2.2.1 단순성	10
2.2.2 반복성	11
2.2.3 주목성	12
2.2.4 확장성	14
III. 업스타일의 특징 및 분석	15
3.1 업스타일의 특징 및 표현기법	15
3.2 업스타일의 디자인요소	18
3.2.1 조화	18
3.2.2 균형	20
3.2.3 통일	21
3.2.4 강조	22
3.2.5 리듬	23
IV. 옹아트기법이 사용된 응용사례	24
4.1 옹아트 조형요소의 원리가 사용된 사례	24
4.1.1 건축	24
4.1.2 패션	26
4.1.3 홈인테리어	29
4.1.4 네일	30

V. 작품제작 및 해설	32
5.1 제작계획 및 재료	32
5.2 단순성 작품제작 의도 및 제작방법	32
5.2.1 도전	33
5.2.2 리듬	40
5.3 주목성 작품제작 의도 및 제작방법	47
5.3.1 미로	47
5.3.2 우주	55
5.4 반복성 작품제작 의도 및 제작방법	62
5.4.1 태양	62
5.4.2 파도	69
5.5 확장성 작품제작 의도 및 제작방법	76
5.5.1 회전	76
5.5.2 끌림	84
VI. 결 론	91
참 고 문 헌	93
ABSTRACT	97

표 목 차

[표 2-1] 선행 연구자료 읍아트 조형원리	9
--------------------------------	---

그림 목 차

[그림 4-1] Victor Vasarely - Hommage á Malévitch	25
[그림 4-2] Burnham Pavilion	26
[그림 4-3] TID TOWER	28
[그림 4-4] 2006 S/S	28
[그림 4-5] 2017 F/W	28
[그림 4-6] 2016 S/S	28
[그림 4-7] 2012 F/W	28
[그림 4-8] 2008 F/W	28
[그림 4-9] Op Art 타일	29
[그림 4-10] Op Art 벽면	29
[그림 4-11] 까사미아 쿠션	30
[그림 4-12] 임충현 Work-V	30
[그림 4-13] Op Art Nail	31
[그림 4-14] Black and White Nail	31
[그림 5-1] Bridget Riley	34
[그림 5-2] Victor Vasarely	41
[그림 5-3] Bridget Riley	49
[그림 5-4] Victor Vasarely	56
[그림 5-5] Bridget Riley	63
[그림 5-6] Victor Vasarely	70
[그림 5-7] Bridget Riley	78
[그림 5-8] Victor Vasarely	85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눈을 통해 응시하는 우리 앞에 우주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눈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눈을 잃고 살아야 한다면 모든 자연의 작품들을 맛보기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눈은 영혼에게 창조의 무한한 다양성을 표상한다.”¹⁾

프랑스 저명한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는 1961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죽음의 직전에서 『눈과 마음』을 완성하였으며 여기서 그는 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시각적 다양성이야말로 인간의 누리게 되는 진정한 예술적 아름다움이라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시각은 눈으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정보를 시신경의 자극을 통하여 뇌로 전달하기에 완전하다고 말 할 수 없다. 그렇기에 메를로퐁티의 말처럼 단순한 형태의 시각적 정보만이 아닌 우리의 눈은 무한한 다양성과 관찰자마다의 각기 다른 창조적인 형태의 예술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같은 사물을 바라보는 관찰자들이 지각하고 때와 상황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르게 지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지각이 단순히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대상에서 질서를 찾아 재구성하는 표현적인 성격으로서의 적극적인 ‘정신과정’이다.²⁾ 이러한 시각적 다양성은 시지각상의 모순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새로운 표현으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게 하는데 이를 우리는 착시현상이라고 한다. 이 현상은 다양한 예술의 관점에서 볼 때 형태의 구성요소인 점, 선, 면을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나열하여 대중에게 시각적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목받게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말 할 수 있다. 형태의 기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점, 선, 면의 틀 위에서 반복, 조합, 결합, 교환 등의 구성을 통하여 감각에 의한 이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다양하고 흥미로운 시각적 효과를 나타낸다.³⁾

1) 모리스 메를로-퐁티, 김정아 옮김, (2008), 『눈과 마음』, 서울: 마음산책, p.137

2) 김춘일, 박남희, (1991), 『조형의 기초와 분석』, 서울: 미진사, p.89

3) 정윤슬, (2012), “유틸리티아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5

점, 선, 면이라는 조형요소는 단순히 조형요소에 그치지 않고 더욱 큰 의미와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단순한 기하학의 구성요소가 아닌 하나의 표현대상이며 의미를 지닌 주체라 할 수 있게 되었다.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점, 선, 면의 조형적 특징을 아름다운 예술적 감각으로 표현하고자 패션, 가구, 인테리어, 네일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연구 및 활용되어지고 있다.

점, 선, 면의 배열이나 크기가 달라지면 공간적 거리가 달라진다고 인지하여 인지된 공간과 실제 공간 간의 차이로 인해 시지각적인 착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 선, 면의 조형적 특징은 우리의 눈으로 인지되어진 시각 정보를 심리적 착각을 일으키며 다양한 방법으로 단순한 반복 형태의 구조를 가짐으로서 기하학적 형태의 조형 단위를 구성하며 시지각적인 착시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예술적 요소라 하겠다.

즉, 인간의 시각을 통해 착각이 생기는 현상을 착시라 할 수 있으며,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의 시각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는 지각 현상이다. 이러한 착시 현상들을 이용하고 응용한 미술 작품을 옵아트라 한다.⁶⁾

옵아트는 사람의 눈을 통하여 인간의 뇌를 거쳐 가지게 되는 착시라는 지각 현상이기에 대중들은 그동안 다른 예술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옵아트만의 특징적인 표현양식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되어질 만한 예술적 요소로서 주목 받아온 시지각적 예술의 한 분야인 것이다.

그 동안 옵아트의 예술적 특징을 이용한 연구는 다양한 산업과 생활방면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옵아트의 표현 형태와 각 연구 분야의 사례로는 현대 공간 디자인과 옵아트의 착시 기법과 표현 연구(권선주, 2012), 옵아트 이미지의 패션디자인

4) 이화진. (2006). “점, 선, 면의 반복구성을 이용한 가구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5) 진전. (2018). “착시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6) 노승석. (2008). “착시의 예술인 옵아트(Op Art)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영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연구(김송희, 2012), 옹아트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연구(최지현, 2014), 옹아트를 이용한 인프라 패션 연구(양소영, 2017)등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옹아트를 이용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되고 있으나 옹아트의 특징인 시각적 착시현상을 가지고 업스타일에 적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실험정신이 뛰어난 몇몇 연구진에 의해 헤어디자인에 착시효과를 이끌어 낸 연구로 김가연 (2003)은 기하학적 형태를 바탕으로 헤어디자인의 형태 도출에 관한 연구, 이민애 (2018)의 옹아트 패턴을 이용한 헤어디자인 연구와 같이 옹아트의 시지각적 특색을 헤어디자인과 접목한 연구는 소수로 있을 뿐 업스타일에 적용사례는 미비하다.

업스타일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가장 자신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표현해 낼 수 있는 헤어디자인의 한 분야이다. 연회나 파티와 같은 품위와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전통적인 모습은 물론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특색과 분위기를 독창적으로 나타내는 업스타일의 변화는 대중생활 속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응용 예술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업스타일의 예술적 가치는 시대 및 장소의 특색에 따라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하여 업스타일의 새로운 표현이 재탄생되리라 기대하며 이러한 예술적 표현 형태들은 시대적 문화와 감성을 전달하기에 더욱더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는 시각적 착시현상을 바탕으로 한 조형예술의 한 분야인 옹아트의 특성과 헤어디자인에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업스타일의 요소를 고찰하고 옹아트와 업스타일의 예술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디자인 구성요소를 각각 접목하여 그동안 시도조차 미비하였던 새로운 예술창작을 연구 개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옹아트의 개념과 표현 기법을 알아보고 이러한 표현기법을 토대로 옹아트의 특성을 업스타일에 적용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업스타일 작품을 재해석하여 업스타일을 보다 다양한 예술적 영역으로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론적 배경 고찰과 실질적 작품제작이라는 연구 방법 및 범위를 지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옹아트의 이론적 배경으로 그 개념과 역사 등을 고찰하여 옹아트 예술의 구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둘째, 옹아트 조형의 원리가 적용된 작품들을 살펴보고 그 특성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디자인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업스타일의 종류, 표현 기법 등을 고찰하고 업스타일에서 표현된 디자인 요소들을 분석한다.

넷째, 선행되어진 논문을 고찰하여 우리 주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된 옹아트 응용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다양한 업스타일 분야에서 옹아트의 조형원리를 바탕으로 한 예술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옹아트 대표작가의 작품을 모티브로 창의적인 디자인 작품을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옹아트의 조형의 원리와 업스타일의 디자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독창적이며 창조적인 작품제작에 몰두하며 작품은 단순성, 반복성, 주목성, 확장성의 옹아트 조형적 요소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Ⅱ. 옵아트의 이론적 배경

2.1 옵아트의 개념

옵아트는 지각적 모호함과 최소한의 시각적 장치를 이용하여 시각에 충격과 혼란을 줌으로써 작품이 진동하거나 점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각적인 움직임을 창출하는 기하학적 추상의 한 갈래를 가리킨다.⁷⁾

옵티컬 아트(Optical Art)의 약어로서, 정서적, 관념적인 요소가 배제되고 계산된 시지각적인 움직임을 화면에 표현함으로써, 감상자에게 착시와 같은 시지각적 자극을 주는 예술사조이다. 옵아트의 시각적 패턴과 그로 인해 느껴지는 동적인 울동감과 입체감은 대중들의 주목성을 받게 해주며, 이는 옵아트만의 독특한 조형미로 꼽을 수 있다.⁸⁾

옵아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즉 일상적인 시각이나 다른 형식의 예술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심리적인 과정이 눈을 통하여 뇌에 전달됨으로서 나타나는 효과라는 점이다.⁹⁾

1960년대 추상미술의 한 분야로서 옵티컬 아트(Optical Art)를 줄여서 만든 옵아트(Op Art)라는 용어는 1964년 10월 「타임」지를 통해서 최초로 언급 되었다. 이후, 1965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반응하는 눈(The Responsive Eye)〉展을 통해 미국에 정착하게 된다. 유럽에서는 1960년대 초반부터 각종 비엔날레를 통해 옵아트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 되었으며, 1965년 바자렐리가 상파울루비엔날레에서 수상하면서 옵아트의 성행이 절정에 이른다.¹⁰⁾

7) 임충현. (2007). “도제 조명등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8) 최지현. (2014). “옵아트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텍스타일디자인 제품제작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9) 시릴 바레트, 정미희 옮김. (1992). 『옵 아트』. 서울: 미진사. p.7

10) 서한샘. (2014). “1960년대 한국 옵아트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인간의 눈은 형태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자극이 망막을 통하여 대뇌에 전달되지만 이때 그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그 대상을 지각하기 때문에 심리적 용인이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인 반응을 나타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조형현상을 기본으로 하여 광학이 인간의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¹¹⁾ 궁금증으로 옵아트에 대한 연구가 시작 되었으며 더욱이 기하학적 패턴은 실체를 본연의 모습이 아닌 뇌에서 일어나는 이미지를 다양하게 부각시키며 감상자로 하여금 각기 다른 예술성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초창기 옵아트는 러시아 구성주의의 이론과 바우하우스의 실험적인 전통과 기하학적인 추상, 그리고 수학적으로 계산된 조형 등 기술적, 과학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그에 뿌리를 두고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¹²⁾

러시아 구성주의는 기하학적 조형 요소의 구성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기계적이며 역동적인 움직임을 추구하였고(박태용, 2006) 바우하우스는 일찍이 색채와 원근법을 이용한 시각적 교육과정을 진행 하면서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옵아트 운동의 발판이 되었다.

그 당시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로 실험적 연구를 지도한 요셉 앨버스는 옵아트가 현재까지 발전 해오게 된 개척자의 역할을 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1940년대까지 옵아트는 예술적 요소 보다는 단순한 반복의 형태로 심리적 또는 시각적 착각을 일으키는 실험적 분야 이였기 때문에 많은 전통 화가들로부터 그 예술성을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밀한 표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던 몇몇 젊은 화가들에 의해 행위 미술은 후기색채추상으로 흘러갔는데 이런 경향을 받아들인 빅토르 바자렐리(Victor Vasarely)와 브리짓 라일리(Bridget Riley)등에 의해 평면적 회화 입체적인 느낌을 더해 착시적 효과를 나타내는 옵아트 작품들이 대거 나타나기 시작했다.¹³⁾

11) 임혜원. (2005). “옵티컬 아트의 원리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12) 정병주. (2018). “옵아트의 특성을 활용한 헤어타투 디자인 개발”.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13) 강주희. (2013). “옵아트 작품을 응용한 헤어 아트 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2). p.20

빅토르 바사렐리 (Victor Vasarely)는 시지각 미술의 영역을 간결하고 정밀한 표현의 예술로서 재창조하는 옵아트 대표적 예술가이다. 바사렐리 작품미학의 근본적인 원리는 착시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착시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그로 인해 옵아트는 새로운 미술 예술양식으로 색이론, 시지각, 착시현상이 연구 되었으며, 정확히 구성된 기하학적인 추상이 추구되고, 수학적으로 계산된 도형이 등장하였다.¹⁴⁾

브리짓 라일리(Bridget Riley)는 영국의 옵아트 화가로서 당시 유럽대륙에 있는 동료 화가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지각현상의 예술적 가능성을 끊임없이 연구하였고, 흑백회화 부분에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¹⁵⁾ 그는 흑백의 대비에서부터 다양하고 규칙적인 색채의 패턴을 확장과 팽창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여 옵아트 다양한 변화를 이끌었다.

14) 엄미리. (2013). “현대패션에 표현된 옵티컬일루전의 유형과 미적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9

15) 전성혁. (2004). “옵 아트(Op Art)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연구”. 계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2.2 옵아트의 조형 원리

예로부터 사람들은 3차원의 실제 세계를 2차원의 평면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옵아트의 가장 큰 특징은 2차원 공간에서의 평면 표현을 통해 3차원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형과 색채 등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이용한 미술 또는 기하학적 형태나 색채의 장력을 이용하여 시각적 착각을 다룬 추상미술, 광학의 미술이라고 부르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¹⁶⁾ 옵아트의 표현방법은 점, 선, 면의 기본적인 조형요소를 바탕으로 방향, 크기, 양, 색채, 질감, 분할을 통하여 착시를 일으켜 대비, 반복, 점 이, 방사, 동심원, 원 중심의 이동, 완곡과 굴절 형태의 구성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동안 옵아트의 기본적인 조형요소인 점, 선, 면에 관하여 선행된 연구들 중에서 우선 이재영(2002)은 옵아트의 조형요소와 착시를 중심으로 반복적인 형상과 선, 면을 통한 시각적 효과를 응용하였으며 다양한 재료와 제작방법으로 현대적 감각의 옵아트 특징을 표현하였다. 정진아(2006) 점의 다양한 조형성 형태의 반복적 리듬감을 통해 시각적 착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점의 크기 변화로 만들어진 입체 공간감은 옵아트의 착시효과를 금속 공예의 물성 표현 양식에도 가능함을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최성진(2014) 옵아트의 평면적인 요소를 다양한 기하학적인 패턴과 이미지를 통하여 인체의 곡선과 입체감에 접목하여 옵아트의 미지를 극대화 시킨 바디아트가 있으며 김주은(2008)은 단순하고 간결한 형식의 반복적 선을 바탕으로 기하학적 공간을 창조하며 새로운 공간 전환 가능성을 증명했다.

본 연구는 옵아트의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그 동안 선행 되어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단순성, 반복성, 주목성, 확장성으로 구분하여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자 한다.

16) 이민영. (2014). “아카시 니할라니 (Aakash Nihalani)의 옵아트 조형원리를 응용한 고등학교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표 2-1] 선행 연구자료 옅아트 조형원리

학자 구분	이재영 (2002)	손지연 (2006)	김주은 (2008)	최성진 (2014)	양소영 (2017)		연구자
옅아 트 의 조 형 성	반복		중첩			⇒	반복성
	단순성	축소	선	합성	단순성	⇒	단순성
	빛의 굴절	왜곡	원근법	변형	주목성	⇒	주목성
	리듬감	확대		색상조절	확장성	⇒	확장성
	반사	무장식					

2.2.1 단순성

옵아트는 단순성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적이며 즉각적인 효과를 위하여 복합적인 서술을 피하고 하나의 요소 또는 여러 요소들의 질서 있고 규칙적인 흐름을 간략하고 일률적인 구성 방식으로 표현하여 형태에 있어서 기하학, 기계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¹⁷⁾

또한 단순성의 지향에는 절제와 절약이 뒤따른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과감한 포기와 최소한의 요소의 사용은 단순성을 갖게 되며 강한 표현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단순성은 수에 관계 되는 것이 아니며, 요소의 양이 많다하더라도 구조적인 특징들이 같은 요소들은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어 지기 때문에 같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진 요소들의 수의 증가는 이미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¹⁸⁾

현대인은 고도로 복잡하고 폭발직전의 기계화시대에 살지만 정신적으로 단순함을 추구한다. 그 단순함이란 일상생활의 외면적인 복잡함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나 도구나 장식에서의 식상함, 세련미와 정교함보다는 오히려 원시성과 자연을 선호하는 시대적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⁹⁾

이렇듯 현대 사회의 불규칙적이며 복잡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단순함의 요소와 공통되어지는 규칙성을 찾고 단순화함으로써 현대 미술의 단순성을 극대화 하고 있으며 옵아트분야 역시 이러한 단순함을 기본 조형요소로써 많은 작품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17) 이재영. (2003). “착시(Optical Illusion)의 조형요소를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18) 김지현. (2010).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단순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19) 백호인. (2002). “광고표현에 있어서 單純性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2.2.2 반복성

반복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일한 요소나 행위가 되풀이 되는 것을 나타낸다. 어떤 성질, 형태, 배치 등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간 또는 공간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되풀이 되는 것으로 이는 동일한 요소나 대상 등을 두 개 이상 배열시켜 감상자의 시선을 이동시켜 상대적으로 동적인 느낌을 줌으로써 리듬감이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시각적인 힘의 강약 효과라 볼 수 있다.²⁰⁾

반복은 모든 예술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음악에서는 멜로디가 반복되어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도 하며 문학예술 속에서도 시와 같은 경우, 운율에서 반복성이 사용된다. 작가들은 자신이 작업한 작품을 감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각언어로 표현하는데, 반복은 이러한 시각언어의 한 가지 방법으로 미술 작품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²¹⁾

옵아트에서의 반복성은 점, 선, 면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단순하게 반복되어 지거나 크기가 점차 커지거나 또는 작아지고 색채의 명도가 변칙적으로 변함으로서 시각적 착시를 일으키게 한다. 단순한 반복은 단조롭고 용이하지만 시각적 반복의 변화를 가진 연속적인 리듬을 되풀이할 경우에는 매력적인 리듬이 되며 이러한 복잡한 연속 리듬에 의한 반복을 교차²²⁾반복 이라고 한다. 또한 점·선·면의 반복적인 형태가 이루어짐으로서 동적인 리듬감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속도감까지 느낄 수 있다.

단순하고 규칙적인 형태는 우리의 기억 속에 쉽게 들어오며, 이러한 반복에 의한 형태의 변화는 옵아트가 시각적인 효과를 내는데 꼭 필요한 강한 조형단위인 것이다.²³⁾

20) 김주은. (2008). “반복적 선에 의한 공간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21) 윤나리. (2011). “형태의 반복성을 적용한 입체조형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22) 권상구. (1988). 『기초디자인 : 평면구성을 중심으로』. 서울: 미진사. p.122

23) 김혜진. (1997). “옵-아트 패턴을 응용한 직물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2.2.3 주목성

주목성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힘으로써 색의 형태와 면적, 연상 작용, 색의 3요소(색상, 채도, 명도)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한 레이아웃에서 어떤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보다 더 크게 변형을 주거나 대비를 준다. 디자인 표현에서 기본이 되는 조형적 특징을 강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시선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²⁴⁾ 이러한 시선 유도는 색의 변환 또는 형태의 변화로 시지각적 착각을 일으켜 사람의 눈을 매료시킴으로서 주목하게 된다.

인간의 뇌는 지각되는 물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이 설 때까지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다. 지각 이론들에 의하면 착시 중에서도 불가능도형이나 반전도형을 대할 때 우리는 정상적인 물체를 지각할 때와는 다른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착시를 발견했을 때 지각은 애매성, 불확실성, 모순들로 인해 혼란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생성된 긴장감은 관찰자로 하여금 이상한 느낌과 강한 인상을 받게 하고 시선을 집중 시킨다.²⁵⁾

실제로 착시 원리를 조형예술이나 회화의 새로운 표현방법으로서 활용하는 예술가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시지각 상의 여러 가지 오류가 오히려 시각 유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²⁶⁾ 그리고 착시 원리를 이용한 시각디자인분야는 그 활용도가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더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건축, 의상, 광고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대중의 주목을 받게 하는 표현 수단이 되었다.

옵아트 대표 작가인 빅토르 바자렐리, 조셉 앨버스, 브리짓트 라일리 등은 여러 다양한 실험을 통해 여러 가지 착시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계화 시켰으며, 대중들에게 계획적인 착시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 여전히 쉼 없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옵아트 작가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형식과 이론으로 옵 패턴을 연구

24) 안희란. (2015). “캘리그래피가 광고의 주목성과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25) 정운슬. (2012). “옵티컬아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26) 방우송. (2006). “착시를 이용한 예술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6(5). p.84

하고 옵아트를 발전시켰다. 옵아트 작가들의 실험정신과 과학적 의식을 바탕으로 구체화되어진 옵아트는 그 독창적이며 강렬한 매력으로 인해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²⁷⁾

따라서 옵아트의 이미지는 간결함 속에서 가장 적극적인 공감을 자극하게 됨으로써 주목성을 유도하고 인간의 시지각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몰입하여 옵아트의 주목성에 호응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²⁸⁾ 앞선 대표 작가들의 독창적인 옵아트 작품형태는 대중의 주목을 강하게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7) 정윤슬. (2012). “옵티컬아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1

28) 최성진. (2014). “옵아트의 조형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3

2.2.4 확장성

확장성은 옵아트의 착시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이다. 기하학적인 패턴이 크기를 달리하면서 반복하거나, 직선과 곡선을 응용해 본래의 크기보다 더욱 커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²⁹⁾

구체적인 형을 따라서 선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창조력을 지니며 보는 이의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과 어떤 부분들을 특히 강조하는 기능을 지닌다. 또한, 선이 놓여지는 방향과 길이에 따라 각기 방향성과 운동력을 표출하기도 한다.³⁰⁾ 동일한 크기의 단순한 반복의 의미가 아닌 한 방향으로 또는 불규칙스러운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점차 반복적으로 확대되어지며 시지각적 확장성을 느끼게 한다.

일련의 연속적인 변화는 원근법적인 선, 점, 면의 시각적 착시로 인하여 입체적인 공간을 자아내기도 하고 그 입체적 공간이 확장 될수록 그 속으로 빨려드는 듯 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옵아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즉, 일상적인 시각이나 다른 형식의 예술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심리적인 과정이 눈을 통하여 뇌에 전달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이용한 예술이다. 이러한 옵아트는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책, 포스터, 광고, 포장, 디스플레이, 장신구, 의류, 건축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모든 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 사용되고 있다.³¹⁾

29) 양소영. (2017). “옵아트를 응용한 인프라 패션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7

30) 김희진. (1995). “선과 면에 의한 착시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31) 노승석, 고창선, 박진완 (2010). “착시의 예술인 옵아트(Op Art)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작품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0(2). p.94

Ⅲ. 업스타일의 특징 및 분석

3.1 업스타일의 특징 및 표현기법

업스타일이란 사전에서 찾아보면 (up+stile)〈명사〉 머리를 높이 빗어 올려 위에서 마무리고 목덜미를 드러내는 여자의 머리모양 또는 여자의 머리 꾸밈새의 하나라고 정의 되어 있다. 우리는 업스타일이라는 용어에 접하게 되면 올림머리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를 살펴 볼 때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실제 예식 때나 평상시 우리는 흔히 업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올림머리뿐만 아니라 쪽을 짓는 내림머리에도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때, 좀 더 넓은 의미로 업스타일이란 ‘머리를 빗어 올려 묶거나 핀으로 고정시켜 목덜미부분 위에서 연출되어지는 모든 형태의 스타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³²⁾

커트가 감소시키는 미학이라면 업 헤어스타일은 더 하는 미학이라 할 수 있다. 업스타일 디자인은 얼굴의 형태와 목선이 모두 드러남으로 얼굴형과 헤어 아우트라인과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얼굴형에 맞는 조형적 업 헤어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얼굴형의 기존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모임의 성격과 장소, 의상 등을 고려해서 시술하여야 하므로 무엇보다 소재의 특성을 잘 살펴서 디자인 계획을 세워야만 성공적인 업스타일을 연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업 헤어스타일은 헤어 디자인 예술의 한 분야로 보다 창의적인 디자인 표현을 위한 균형, 비율, 강조의 디자인 법칙을 통하여 디자이너의 감성을 한층 더 우아하고 여성스럽게 표현하여 예술성을 더욱 부가 할 수 있다.³³⁾

32) 정숙향. (2002). “업 헤어스타일의 디자인 開發에 關한 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33) 주용영. (2006). “미용사의 업 헤어스타일에 대한 인식과 교육현황 조사 연구”. 건국대학교 산 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업스타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중문화에 발 맞추어 그 시대의 유행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기술적, 예술적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조화로우며 독창적인 업스타일을 표현해 내고 있다.

모든 여성의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인 결혼식에서의 업스타일은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를 위한 가장 우아하고 사랑스러움을 잘 살리는 창조적 예술이다.

웨딩 업스타일은 볼륨감을 주되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연출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깨끗한 이미지를 살려야 한다. 단아한 이미지를 위해서는 가지런하고 통일감 있는 연출이 좋다.

특히 롱 헤어인 상태에서 시술하는 경우가 많지만 짧은 헤어일 경우에는 피스를 이용하여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디자인은 여성의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을 표현하는 예술형식으로 형태, 절감, 칼라와 같은 디자인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성한다.³⁴⁾

웨딩드레스와 더불어 격식 있고 품위 있는 자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브닝드레스가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 있어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연회, 연주회, 시상식, 파티등 특별한 날에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주위의 시선을 끄는 예복이며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의 곡선미를 그대로 보여 주는 이브닝드레스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바로 업스타일이다. 이는 페미니즘을 강조한 것인데,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도록 할 것이지 에파라 조금씩 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 파티나 모임이 평상시 보다 강한 메이크업과 과감하게 노출되어지는 부분이 많을 경우엔 점잖고 심플한 스타일이 어울린다. 흘러내리는 듯한 웨이브라인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로맨틱한 뉘앙스를 풍긴다.³⁵⁾

한복 업스타일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멋으로 오래 전 아낙네들의 쪽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명절이나 잔치에 한복을 착용 하게 될 때 하

34) 강재순. (2007). “업스타일의 유형에 따른 작품 분석”.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35) 한성진. (2007). “일본업스타일을 모티브로한 현대 퓨전 업스타일의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4

는 업스타일이다.³⁶⁾ 한복 고유의 선의 아름다움은 한복 착용 시 어깨선과 목선을 따라 올라가 헤어스타일에 그 정점을 나타내며 그에 따른 업스타일은 한복의 고풍스러운 멋을 가장 잘 연출하기도 한다.

한복 업스타일하면 명절, 결혼식장의 대표적인 쪽진 머리를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오늘날의 개량 한복처럼 전통적인 의상과 현대적인 의상의 장점들을 조화시켜 놓은 패션의 등장으로 인해 한복 업스타일은 다양하게 변화되어가고 발전되어지고 있다. 평상시에도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올림 머리카나 땃은머리를 이용함으로써 멋진 조화를 이루며 전통적인 멋을 내고 액세서리의 이용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있고 친숙해지고 있다.³⁷⁾

품위와 격식의 전통적인 업스타일이 아닌 현대 사회의 젊은 계층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스타일의 의복과 잘 어울리는 캐주얼 세미 업스타일은 업스타일의 또 다른 분야라 볼 수 있다.

세미 업스타일은 업스타일의 일종으로 머리를 후두부의 가운데 정도에서 모은 것. 오래 전 고대 그리스의 머리형에서 볼 수 있으며, 17세기에 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서도 유행했다.³⁸⁾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또한 개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실용적이며 간편하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세미 업스타일의 특징으로는 업스타일 작업 시 걸리는 시간적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업스타일의 포인트를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둘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³⁹⁾

36) 강재순. (2007). “업스타일의 유형에 따른 작품 분석”.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7

37) 김연자. (2009). “조선 후기 여성 헤어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퓨전업스타일”.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당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9

38)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1997). 『패션전문자료사전』. 용인: 한국사전연구사.

39) 이상무. (2017). “업스타일 표현기법에 따른 선호도 연구”.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3.2 업스타일의 디자인요소

미를 구성한다는 것은 모든 매개요소를 상호 조화시키거나 적절한 변화를 주어 그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다. 디자인 원리란 어떤 실체의 이미지 또는 결과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것이 이루어야 할 각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일하고 구조적 계획으로 어떤 특정한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연과법칙이거나 또는 구성계획이라 할 수 있다.⁴⁰⁾

객관적인 미는 디자인 요소를 디자인의 원리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였을 때 다양한 기법을 시도할 수 있으며, 창작적인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 준다는 것은 디자인의 영역에서 기능적인 것과 연결하여 색채와 형태, 질감이 조화를 이루어 스타일을 구성함으로써 미를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¹⁾

이에 업스타일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로는 조화, 균형, 통일, 강조, 리듬이 있다. 본 장에서는 업스타일의 디자인 요소에 대하여 고찰 하고자 한다.

3.2.1 조화

모든 디자인형식의 기초이며 이를 총괄하는 구성 원리로서 두 개 이상의 요소들이 따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서의 안정감을 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⁴²⁾

조화는 단조로움과 파조(discard)의 두 극단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

40) 김양은. (2004). “선(線)을 강조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41) 강재순. (2007). “업스타일의 유형에 따른 작품 분석”.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42) 이상무. (2017). “업스타일 표현기법에 따른 선호도 연구”.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으며 양쪽의 특징을 결합한다. 예를 들어 두 극단적인 색인 하양과 검정을 합친 중간 회색 같은 것이다.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형태, 크기, 색채 등과 같은 둘 이상의 요소나 특징 있는 부분의 상호 관계에 의해 생긴다. 또한 분리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통일된 전체로서 서로 비슷한 모양을 이루며, 감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때 일어나는 미적 현상이다. 그러나 같은 요소가 지나치게 조화되면 단조로워지기 쉽다.⁴³⁾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상호관계가 가능하기에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어 산만하지 않은 느낌을 주게 된다.

조화에는 크게 유사조화와 대비조화가 구분할 수 있는데 유사조화는 디테일, 실루엣, 재료, 색채, 재질 등이 서로 공통성과 적절한 통일감으로 친근감과 부드러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적인 분위기이나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다. 대비조화는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진 요소로 명확하고 산뜻하며 동적인, 화려한, 남성적인 느낌과 동시에 극적효과와 긴장감을 줄 수 있으나 대비가 강하면 조화를 잃을 수도 있다.⁴⁴⁾ 따라서 대비, 변화요소를 가미하여 통일,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조화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원리들이 통합되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이루어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총체적인 의미로 파악하여야 한다.⁴⁵⁾

43) 김인혜. (2008). 『기초디자인 점/선/면』. 서울: 미진사. p.31

44) 안나현. (2014). “디자인 원리를 적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감성이미지 표현”.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

45) 문재원. (2004). “자연의 유기적 형태 표현에 관한 헤어디자인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1

3.2.2 균형

균형은 시각요소들이 형태적으로 서로 질서와 통일감을 갖추었을 때 비로서 시각적,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대조적이며 반대가 되는 요소들 혹은 상호작용하는 요소들 사이의 평형 상태를 말한다. 형태를 분석할 때 우리의 눈은 자연적으로 디자인 내에서 평형을 찾으려 한다. 순서에 관계없이 우리의 눈은 흥미를 잃게 만드는 구성요소를 목적 없이 그냥 지나간다. 어느 예술 형식에서든 균형감을 개발하는 데에는 직관력 뿐만 아니라 깊은 관찰력이 필요 하다.⁴⁶⁾

헤어디자인에서의 균형은 형태, 질감, 색채, 위치, 방향 등으로 얻어지며, 크게 양쪽에 크기와 모양이 똑같이 위치하고 실제 무게감도 똑같이 분배되는 대칭(Symmetry)과 양쪽의 크기와 모양이 다르며 위치하고 무게감도 다른 비대칭(Astmmerty)이 있다.⁴⁷⁾

대칭은 가장 정형적인 구성형식이며, 가장 일반적으로 균형이 잡힌 형태로서 구성의 중앙을 지나는 선을 축으로 양쪽 면을 접으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을 말한다. 양쪽의 실제 무게감도 똑같이 분배되고 크기와 모양도 똑같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칭의 균형을 이룬 구성은 안정되고 위엄이 있으며, 고요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비대칭은 한 형태의 양쪽이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시각적 무게를 갖고 있어서 보는 사람에게 변화 있는 형태로서 안정감을 주며, 개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 비대칭, 또는 부정형의 균형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정형적인 균형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은밀한 신비로움을 준다.⁴⁸⁾

46) 정숙향. (2002). “업 헤어스타일의 디자인 開發에 關한 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47) 이상무. (2017). “업스타일 표현기법에 따른 선호도 연구”.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48) 손복심. (2007). “우리나라 업스타일의 변천 과정과 재현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 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3 통일

통일은 최종적인 완전한 통합의 원리로 통일은 완성된 전체에 대한 감각이며, 통일 없이 조화는 이를 수 있어도 조화 없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조화가 이루어진 후 통합된 전체에서 통일된 미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⁴⁹⁾

형태의 구성 원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며 전체와 부분 혹은 부분과 부분사이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유기적인 조화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통일성은 어떤 한 요소의 반복함으로 얻어 질 수 있지만 너무 통일에만 치우치다 보면 단순하고 단조로워질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융합된 조화가 필요하다.⁵⁰⁾ 따라서 통일은 여러 요소 속에서 비슷하거나 동일한 요소들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감각적으로나 또는 실제적으로도 형·색·양·재료 및 기술상에서 미적 관계의 결합이나 질서를 말한다. 구성의 조직에서 많은 요소들은 여러 가지 감정상의 경쟁을 하지만 가장 우세한 요소가 주조가 됨으로써 대립은 해결되며 통일을 이룰 수가 있다. 구성요소나 그 부분의 관계에 있어서 이질적 요소가 강하고 극단적으로 변화에 치우칠 때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된다. 그러나 통일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단조롭고 무미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적당한 변화와 통일이 있어야 한다.⁵¹⁾

통일성을 가질 때 조화적 형태, 선 그리고 질감들이 공통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부분과 전체 사이에 질서를 주는 유기적 조화를 말한다. 이는 전체가 부분보다 두드러져 보여야 하며 각각의 요소들을 따로 분리시켜 보기 이전에 전체적인 것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통일성을 가질 때 조화적 형태, 선, 그리고 질감들이 공통적 속성을 가진

49) 이진희, 김서영, 김형철, 이주미, 황정원, 권영민. (2012). 『패션과 뷰티디자인을 위한 토틸 코디네이션』. 파주: 광문각. p.79

50) 이상무. (2017). “업스타일 표현기법에 따른 선호도 연구”.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51) 권상구. (1990). 『기초디자인 평면구성을 중심으로』. 서울: 미진사. p.98

다.⁵²⁾

그렇기에 디자인의 부분적이 요소가 조화와 반복됨으로서 전체의 이미지를 명확히 전달 할 수 있으며 디자인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것이다.

3.2.4 강조

강조는 어떤 부분을 특히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업스타일 디자인에 있어서의 강조는 디자인의 초점이나 주된 흥미와 관련된다. 형태를 통해 어느 한 점에 개성적인 포인트를 주어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거나, 밝은 색상이나 혹은 어두운 색상을 사용해 작품의 강조점을 만들어내는 것 등 형태, 질감, 색상을 통하여 어떤 특정한 효과를 성취하는 것은 헤어디자이너의 예술적인 감각이다.⁵³⁾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요소에서나 점, 선, 면이 점차 확장되는 부분에서도 특정 한 부분의 변화는 그 강조의 의미가 더욱 크게 발휘된다.

그러나 강조가 하나 이상 주어지면 그 힘의 발휘가 오히려 작아지는 수가 있다. 강조의 크기 또한 필요 이상 확대되어질 수 없는 제한성이 있다. 강조부분을 전체 화면에서 하나만을 사용할 때 역시 단조롭고 운동감을 결여하기 쉬우므로 형태·색채·명도 등의 강조요소들을 잘 배치하여 시각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성의 실제에 있어서도 강조지점을 상당히 중요시하며 전체 작품에서 강조가 없으면 주제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강조부분의 크기와 위치의 변화를 주면서 배치해보는 것도 시각의 균형과 움직임 학습하는 데 필요하다.⁵⁴⁾

강조에는 크게 대조, 집중, 우세로 분류할 수 있다. 대조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을 비교, 대립시켜 강조하는 것이고, 집중은 한 곳으로 시선

52) 박기원. (2015). “형태분석법을 통한 미용장 기출 업스타일 디자인 분석 및 작품제작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5

53) 손복심. (2007). “우리나라 업스타일의 변천 과정과 재현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 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54) 권상구. (1990). 『기초디자인 평면구성을 중심으로』. 서울: 미진사. p.112

을 모으는 것이며, 우세는 대조나 집중의 원리가 포함되어 한 범위 내에서 어느 하나를 더욱 우세하게 강조하는 것이다.⁵⁵⁾

이러한 강조의 기법들로 작품은 대중의 시선을 이끌고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예술적 사상을 대중에게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3.2.5 리듬

리듬(Rhythm)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각 요소와 부분사이에 약함과 강함의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변화의 형태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에 있어서 리듬은 선, 형태, 질감, 색 그리고 밝고 어두운 패턴과 공간적 간격 등으로 이루어진 패턴이다. 리듬은 디자인의 한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의 시선 이동을 평이하게 하고 부분들 간의 시각적 관심의 순환적 흐름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리듬은 규칙적으로 재생되는 반복과 흐름이 강조되는 점으로 구분된다.⁵⁶⁾

반복(Repetition)은 리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요소나 대상 등을 두 개 이상 배열시켜 시선이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동적인 느낌을 줌으로써 율동감이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시각적으로는 힘의 강약효과라고 할 수 있다.

점이(Gradation)는 각 부분의 형태가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색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질감의 변화 등의 배열을 말한다. 반복의 경우보다 한층 동적인 표정을 가지고 있으며 보는 사람들에게 힘찬 느낌을 준다.⁵⁷⁾

이처럼 반복의 율동감과 점이의 확장성은 일련의 흐름에 비유할 수 있으며 시각적인 안정감이나 동적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55) 안나현. (2014). “디자인 원리를 적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감성이미지 표현”.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56) 박기원. (2015). “형태분석법을 통한 미용장 기출 업스타일 디자인 분석 및 작품제작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8

57) 문제원. (2004). “자연의 유기적 형태 표현에 관한 헤어디자인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9

IV. 옹아트기법이 사용된 응용사례

4.1 옹아트 조형요소의 원리가 사용된 사례

옹아트는 기하학적인 패턴을 기반으로 한 단순성, 연속적인 리듬의 되풀이인 반복성, 색채의 대비로 인한 주목성, 입체적 공간의 확장성으로 시각적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옹아트의 다양한 조형요소는 건축, 패션, 인테리어, 네일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옹아트의 조형요소의 원리가 사용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4.1.1 건축

건축이란 외부의 자연 환경에서 인간을 보호하며 건축의 내부에서 스스로 또는 구성원 대부분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건축의 본질적인 문제의 하나는 내부공간에서 외부공간으로 향하는 변화와, 또 그 반대로 외부공간에서 내부공간으로 향하는 변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 개념이 형태적, 물리적으로 시각화된 여러 방법에 의해 추론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일찍부터 주목 되어 왔다.⁵⁸⁾

건축 공간의 인지에 있어 인간의 시지각은 중요한 요소이다. 인간 개개인의 사고가 다양하듯이 공간을 인지하는데 있어 인간의 시지각은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작용하게 된다.⁵⁹⁾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건축을 성립함에 있어 각자 자신들만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의 건축물에 표현하기도 한다. 그들의 표현은 시대, 지역, 문화, 사회 등의 변화에 따라

58) 김정환. (2005). “건축공간에서 창에 의한 관념적 공간 인지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 디지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59) 오민주. (2003). “건축 공간의 다양성 인식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1

다르게 나타난다. 오직 하나의 스타일을 갖는 건축이 표현되거나 형성되지 않으며 그 속의 건축 구성 원리도 또한 변형이 이루어져 변화하고 발전된다.⁶⁰⁾

바자렐리 경우 옹아트 작품을 건축에 합류시킴으로써, 움직이는 조형예술의 활용도를 효과적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작가 최초의 예술작품과 건축과의 합작품은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Caracas)대학의 캠퍼스이며,〈말레비치에의 경의(Hommage a Malevivitch)〉⁶¹⁾라 불리는 도기타일의 기하학적 구성 요소를〈그림 4-1〉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림 4-1〉 Victor Vasarely - Hommage á Malévitch

출처: <http://www.op-art.co.uk/victor-vasarely/>

건축, 조형물에 나타난 옹아트 패턴의 조형적 특성인 직선과 곡선을 반복적으로 배열시키고, 흑백의 대조와 단순하고 선명한 색상의 대비, 반복적이고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만들어 원근감, 공간감, 입체감과 색채의 시각적 착시를 불러 일으킨다.⁶²⁾

과거부터 옹아트를 활용한 건축의 미와 공간 창조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이는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 더욱 각광받고 있다. 〈그림 4-2〉와 같이 연속

60) 주소연. (2010). “현대 패션에 나타난 FOLD 기법의 조형성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3

61) 정윤슬. (2012). “옵티컬아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6

62) 이민애. (2018). “옵아트 패턴을 활용한 헤어디자인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적인 볼륨의 변화로 건축 조형의 공간이 확장되는 옹아트의 조형 요소를 잘 살리고 있으며 <그림 4-3>과 같이 연속적인 평면이 반복적 결합하면서 시각적 리듬의 착시를 입체적 조형으로 탄생하게 하였다.



<그림 4-2> Burnham Pavilion

출처: <https://iremstructure.wordpress.com/>



<그림 4-3> TID TOWER

출처: <https://www.archdaily.com>

4.1.2 패션

패션은 인간의 요구충족을 위한 시대적 문화적 의상의 변화이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특정 의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⁶³⁾

예전부터 옷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며 각 계층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대별로 그 시대의 문화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의상은 단순한 옷의 개념보다는 보편적이며 실용적인 면이 더 많이 부각 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패션이라는 예술적 요소가 가미되어 다양한 디자인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의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예술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도전적인 창조적 작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패션디자인은 시각예술(visual art)의 한 분야로서 일반조형예술

63) 마조리 엘리오프 베블린, 정경원 옮김, (1996), 『디자인의 발견』, 서울: 도서출판 디자인 하우스, p.328

(plastic art)의 요소와 원리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⁶⁴⁾으며 그 요소 중 선은 패션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외향을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이다.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선의 착시현상은 선을 패턴화시켜 그 자체에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거나 여러 디자인 요소나 원리와 결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형태로 사용된다.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이나 점과 면의 연결 등으로 공간감이나 운동감을 주기도 하고 형태를 왜곡시키기도 한다.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곡면이 생기면서 평면의 선이 순간적으로 입체적인 느낌이 나게 되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⁶⁵⁾

의복 패턴에 사용된 Op Art의 경향은 대부분 환상적이고 환각적인 특성과 예민하고 날카로운 시각반응을 요하는 딱딱하고 기하학적인 선으로 표현되어 현대의 기계적인 분위기를 잘 반영해 주기 때문에 개성적이고 독특한 의상 표현에 적합하다고 본다.⁶⁶⁾

2000년대의 옵아트 패션의 특징은 현대 패션의 다양성에 발맞추어 기존의 평면적인 프린트 표현방법과 더불어 다양한 디테일, 트리밍과 기법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이는 입체감과 공간감 및 지각적 환각을 더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⁶⁷⁾

Jonathan Saunders의 2006년 S/S에서는 <그림 4-4>스트라이프 연출로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선의 울동을 통한 공간 형상의 시각 효과를 나타냈으며 Manish Arora는 2017년 F/W에서 <그림 4-5>옵아트의 조형구성 중 곡선의 착시를 강조 하였다. 또한 Gareth Pugh의 2016 S/S에서는 <그림 4-6>흑백의 기하학적 형태를 비대칭적으로 연속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각적 착시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 패션의 한 부류인 신체부위를 잘 표현하기에 속옷을 겉옷의 개념으로 탄생시킨 인프라패션 디자인 사례에서도 옵아트의 특징은 돋보인다.

64) 유송옥. (2005). 『服飾意匠學』. 서울: 修學社. p.51

65) 임혜원. (2005). “옵티컬 아트의 원리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4

66) 정해선. (1992). “OP ART와 현대 패션에 관한 연구 : 선의 착시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3

67) 김차현, 박문희. (2010). “옵아트를 이용한 여성복 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4). p.163



〈그림4-4〉2006 S/S
출처: www.vogue.com



〈그림4-5〉2017 F/W
출처: www.vogue.com



〈그림4-6〉2016 S/S
출처: www.vogue.com

Marc Jacobs는 2016 S/W에서 〈그림 4-7〉과 상/하 구분된 패션으로 상부는 일정한 사선으로 가슴부위를 강조하였으며 하부는 수직선의 단순한 교차패턴으로 통일감 있는 반복성을 강조하고 있다. Jean Paul Gaultier는 2008년 F/W에서 〈그림 4-8〉과 같이 선의 크기를 달리하여 반복적 곡선의 형태로 하체특정부위의 크기를 확장하는 착시효과로 옵아트의 확장성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4-7〉2012 F/W
출처 :www.vogue.com



〈그림 4-8〉2008 F/W
출처 :www.vogue.com

4.1.3 홈인테리어

홈인테리어 디자인은 주거 공간을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게 창조하고 있다. 삶의 여유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쾌적한 생활공간 속에서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잘 나타내고자 세련되고 독특한 소품으로 생활공간을 꾸미고자 한다. 옹아트의 패턴은 이러한 홈인테리어의 작은 소품 하나하나에도 많이 적용 되고 있기에 누구나 쉽게 분위기 변화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

주거의 공간은 가장 편안하며 외부와의 공간과 구별되어지는 각 개인의 특성과 사상이 숨 쉬는 장소이다. <그림 4-9>의 바닥타일에서 보듯이 흑과 백의 면의 입체적 반복은 공간을 하나하나의 입체 조형으로 구성하여 보는 시각에 따라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다. 또한, <그림 4-10>와 같이 흑과 백의 선의 형태 반복은 활동적인 면을 강조하며 벽면과 천정의 구분이 시지각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어 새로운 확장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4-9> Op Art 타일

출처: www.moderndesign.org



<그림 4-10> Op Art 벽면

출처: www.houseofbing.com/

<그림 4-11>과 같이 “까사미아(casamia)에서 제작한 옹아트의 패턴을 활용한 쿠션이다. 형태 중 면의 요소를 활용한 기하학적 패턴을 표현하였으며, 바라보는 초점에 따라 패턴의 형상이 다르게 보인다. 색채는 명도대비가 큰 흑과 백을 사용하여 극도의 대비효과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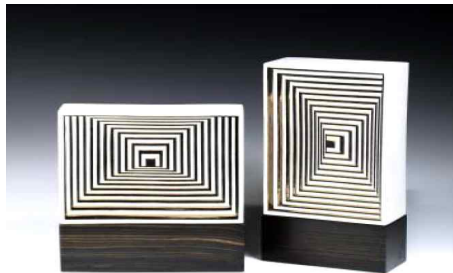
기하학적인 면의 활용과 명도대비로 이루어진 쿠션은 단조로워 보이는 인테리어 분위기에 포인트를 주기 좋은 아이템이다.⁶⁸⁾



〈그림 4-11〉 까사미아 쿠션

출처: <http://blog.casamia.co.kr/110172895945>

빛의 영역인 조명은 실내에서의 새로운 공간형성과 실용적인 조형물로서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림 4-12〉와 같이 도제 조명에 적용된 옵아트의 패턴은 흑과 백의 강력한 명도대비를 통해 팽창과 수축, 진출과 후퇴, 등을 표현하였으며, 형과 바탕의 원리를 응용함으로써 터널 속을 들어가는 듯한, 공간의 깊이의 착시를 느끼게 디자인 하였다.⁶⁹⁾



〈그림 4-12〉임충현 Work-V

4.1.4 네일

네일의 역사는 지금까지 약 5000년에 걸쳐 변화되어 왔다. 최초의 네일에 대한 관리는 기원전 3000년경에 축조된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서

68) 최지현. (2014). “옵아트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텍스타일디자인 제품제작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1

69) 임충현. (2007). “도제 조명등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 시각적 미술(Optical Art)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네일에 바르는 약과 도구들이 발견되었고 그 도구들 중에는 금과 동으로 만들어진 네일용 칼과 줄칼들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금속성 도구들도 발견 되었다.⁷⁰⁾ 일찍이 네일은 의복과 헤어와 함께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손의 건강과 아름다움까지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 네일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어느 한 계층에만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가가는 미용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미의 개념의 변화로 네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대중화됨으로 네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직장을 가진 여성들뿐만 아니라, 주부, 대학생, 남성들까지 네일 관리를 받고 있으며 고객층 또한 다양해졌다.⁷¹⁾

또한, 예술의 장르가 다양해지면서 네일 아트의 작품 역시 단순한 네일관리만이 목적이 아닌 네일이라는 작은 캔버스위에 미적예술을 창조하며 다양한 예술분야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의 한 분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여기서 시각적 착각을 일으키는 옵아트의 표현 방식은 네일아티스트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이며 <그림 4-13>, <그림 4-14>와 같이 기하학적 패턴은 작품표현에 예술적 모티브가 되어 적용되어지고 있다.



<그림 4-13> Op Art Nail



<그림 4-14>Black & White Nail

출처: <http://nailuminium.blogspot.com/2014/08/>

출처: <http://www.nailpolis.com/artworks/modnania-black-white>

70) 정해량. (2006). “네일아트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71) 김민정. (2016). “브리짓 라일리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네일아트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뷰티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

V. 작품제작 및 해설

5.1 제작계획 및 재료

본 장에서는 옵아트의 조형적요소와 업스타일의 디자인 요소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옵아트의 조형요소의 원리를 사용하여 업스타일의 새로운 디자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격식 있는 파티나 연주회시 여성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잘 표현하는 이브닝 업스타일분야에 그 초점을 맞추고 옵아트의 기하학적인 조형원리를 적용하여 대상자 또는 연주자에게 대중이 주목할 수 있는 창조적인 옵아트 업스타일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작품을 제작한다.

작품의 모티브가 된 빅토르 바자렐리(Victor Vasarely, 1906-1977)는 헝가리 출생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옵아트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이며 기하학적인 추상과 수학적 계산된 조형의 작품을 제작 하였으며 브리짓 라일리(Bridget Riley, 1931-)은 런던 출생으로 흑백의 대비로 시각적 착각을 일으키는 작품을 제작하였고 뉴욕에서 열린 ‘응답하는 눈’에 작품을 출품하며 차세대 대표 작가로 인정받았다.

모델은 20대 여성이며 10레벨의 브라운계열의 모발, 탑 부위의 모발이 두피에서 60cm정도의 긴머리이다.

5.2 단순성 작품제작 의도 및 제작방법

옵아트 작가인 Bridget Riley의 작품을 모티브로 선정하여 작품을 제작 하였으며 옵아트의 조형요소인 단순성을 이용하여 입체감 있게 표현 하였다.

옵티컬은 기법이나 만들어내는 패턴의 구성도 다양하며 착시효과도 나타난다. 형태의 단순성으로 인하여 울동감이 극대화된 느낌으로 제작하였다. 탑 포인트에서 왼쪽 이어 포인트까지를 탄력 있게 접어서 웨이브를 만들고 네이프의 늘어진 모발을 손날로 끌어 담듯 말아 넣는다. 반복 동작으로

물을 좌측면을 핀 감춰 꽃기로 고정하고 다이내믹한 흐름을 나타내는 힘을 느낄 수 있다.

5.2.1 도전

유틸리티는 기법이나 만들어내는 패턴의 구성도 다양하며 착시효과도 나타난다.

형태의 단순성으로 인하여 율동감이 극대화된 느낌으로 제작하였다.

소라스타일을 베이스로 깔끔하고 안정감 있게 머리끝을 회전시켜 늘어진 모발을 손날로 쓸어 담듯 말아 넣는다. 다이내믹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힘을 느낄 수 있다.

1) 전체 모발에 매직기로 웨이브를 뿌리부터 강하게 말아준다.

2) 모근이 쓰러지지 않도록 모근 백 콤을 넣어준다.

모발이 흐트러지지 않게 먼 백 콤도 넣어준다.

3) 정중선에서 약간 우측으로 기운 위치에 일자 핀을 꽂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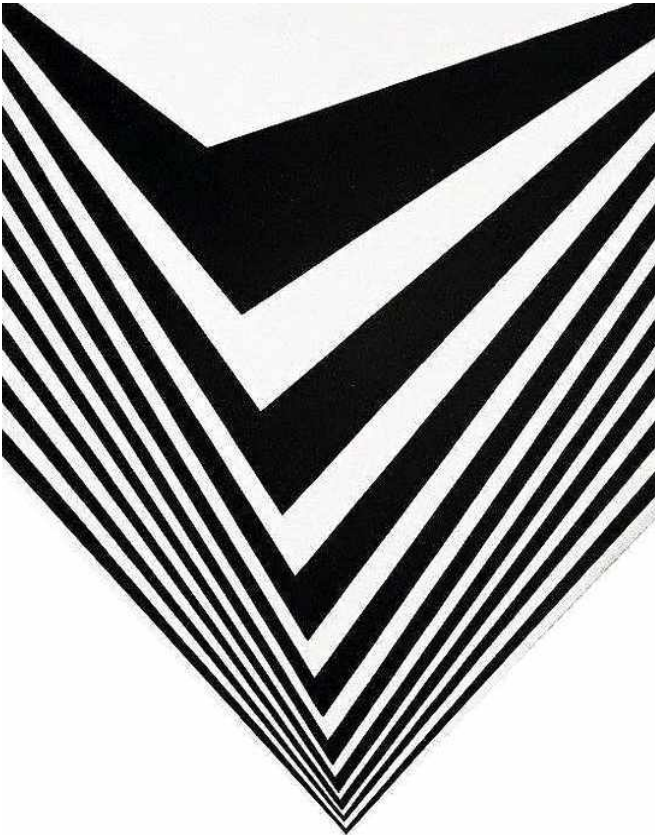
우측에 백 콤을 넣고 머리 솜을 채워준다.

손목을 회전하면서 패널을 틀고 위로 말아 넣듯 감아 돌린다.

면을 받친 다음 회전시켜서 소라스타일을 만들어 핀을 찢러 고정한다.

4) 측면 사선을 슬라이스 하여 손가락에 끼워 잡은 후 삼각형 모양의 틀을 잡아가며 클립으로 임시 고정하고 스프레이를 한다. 클립을 제거한 다음 갈고리 핀으로 대신 고정시킨다.

사용도구 및 재료는 아이롱, 매직기, 다이렉트 고데기, 드라이기, 브러시, 피스, 머리 솜, 와인딩용 고무줄, 보비 핀, 일자 핀, U 핀, 갈고리 핀, 꼬리 빗, 클립, 스프레이

작가/ 모티브 이미지	도전
〈그림 5-1〉 Bridget Riley 출처: https://pin.it/vlw6p5zos c3nivy	



전 제작과정



브라운계열,
머리길이 60cm

① 매직기로 웨이브를
뿌리부터 강하게 말아
준다.

② 뿌리 볼륨을 위해 전
체 모발에 백 콤을 넣어
준다.



③ 손목을 회전
하면서 롤(소라스
타일)을 만들어
핀으로 고정한다.

④ 삼각형 모양의 틀을
잡아가며 클립으로 고
정하고 스프레이를 한
다.

완성

도전 정면





도전 후면



5.2.2 리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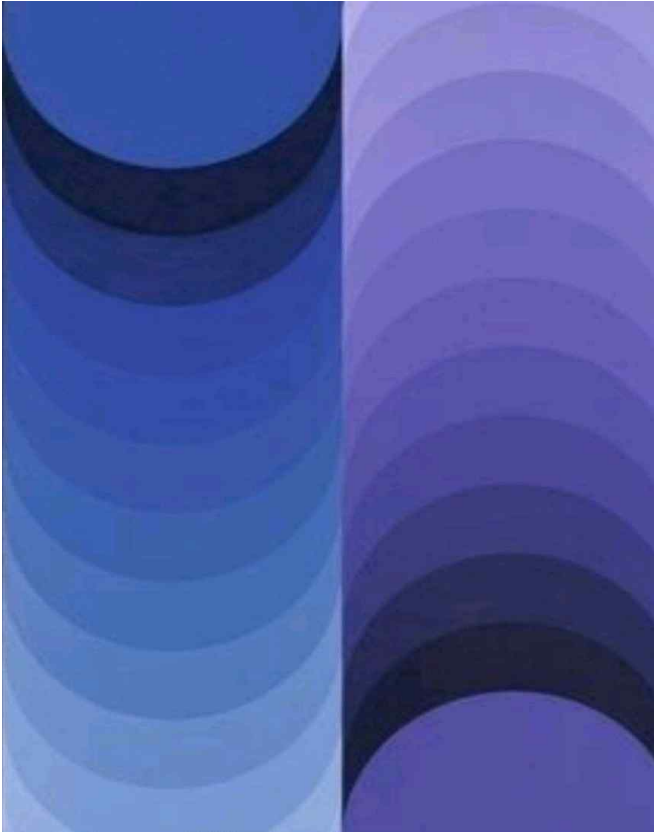
1) 전, 후두부로 블록을 나눈 다음 정중선을 따라 토대 영역을 나누어 준다. 토대 섹션에 가벼운 백 콤과 전체 볼륨을 위해 두피에 모근 백 콤을 넣어준다.

표면에 잔머리를 정리하고 정중선에서 우측으로 약간 기운 위치에 압력으로 눌러 일자 핀을 꽂은 후 우측에 백 콤을 넣고 검지를 펼쳐 텐션 있게 면을 잡아 면의 하단을 누르고 손목을 회전하면서 패널을 틀고 위로 말아 넣듯 감아 돌려서 말아 넣는다. 소라스타일 이라고 한다.

2) 좌측에 모근 백 콤을 넣고 아래쪽에서 부터 롤(소라스타일)을 만든다. 소라스타일은 손목을 회전시키고 끝머리를 당겨서 감추어 고정하고 네이프의 늘어진 모발을 말아 넣는다. 반복동작으로 롤(소라스타일)을 완성시킨다.

3) 우측에도 모근 백 콤을 넣고 위쪽에서 부터 시작하여 롤(소라스타일)을 완성시킨다. 말린 롤과 면은 보비 핀으로 고정한다.

4) 측면은 릿지를 잡아 면 넓히기를 하여 입체적인 질감을 잡아서 클립으로 고정하고 완성된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한 후에 클립을 제거한 다음 갈고리 핀으로 고정한다.

작가/ 모티브 이미지	리듬
〈그림 5-2〉 Victor Vasarely 출처: https://pin.it/skfj33mwnxchgq	



리듬 제작과정



브라운계열,
머리길이 60cm

① 정중선을 따라
토대 영역을 나누어
준다.

② 좌측에는 아래쪽
에서 부터 롤(소라스
타일)을 만들어 고정
한다.



③ 우측에는 위쪽에
서 부터 롤 (소라스
타일)을 만들어 고정
한다.

④ 측면은 릿지를
잡아 클립으로 고정
하고 스프레이
를 한다

완성

리듬 정면





리듬후면



5.3 주목성 작품제작 의도 및 제작방법

Bridget Riley의 작품을 모티브로 선정하여 작품을 제작 하였으며 조형 요소인 면을 단순하게 크고 작게 나열하였다.

옵티컬의 조형요소를 이용하여 입체감이 나타나게 표현하였다.

주목성으로 인하여 관람자의 시각이 직접 호소하므로 업스타일 작품을 감상 할 수 있게 한다.

탑에서 왼쪽 이어 포인트까지 볼륨감을 주고 전체머리를 손목을 돌려 수직으로 빠지면서 동그란 모양의 뱅을 만들어 고정한다.

넓은 이마와 얼굴이 작아보이게 보완해주기 적합하며 현대적인 이미지의 퍼레이드, 헤어 쇼 등에서 응용할 수 있다.

5.3.1 미로

옵티컬의 조형요소를 이용하여 입체감이 나타나게 표현하였다.

주목성으로 인하여 관람자의 시각이 직접 호소하므로 업스타일 작품을 감상 할 수 있게 한다.

탑 포인트에서 네이프 포인트까지 머릿결의 흐트러짐 없이 좌우로 이동하면서 C결을 나타내는 웨이브를 우아하고 지적인 부분을 강조하였다. 선이 흐르는 듯 한 곡선을 포인트로 10레벨의 브라운 계열의 모발에 디자인 하였다.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이브닝파티, 연주회, 오페라공연 등에 연출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1) 아이룽으로 웨이브를 말아준다.

2) 프런트에 모근 백 콤을 넣어서 볼륨감을 살리고 입체감이 생기도록 넓혀서 고정한다.

가닥빼기로 앞머리 질감을 잡은 후 스프레이를 한다.

3) 가닥을 밑으로 내려 웨이브의 면을 넓히면서 연결시켜 릿지를 잡아 나간다.

웨이브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백 콤을 넣고 섹션을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 잡아 서로 비틀 듯이 찢어 릿지를 잡는다.

4) 잡힌 릿지에 웨이브 감을 살리기 위해 넓게 퍼면서 클립으로 임시 고정하여 스프레이를 한다.

사용도구 및 재료는 아이롱, 매직기, 다이렉트 고데기, 드라이기, 브러시, 피스, 머리 슝, 와인딩용 고무줄, 보비 핀, 일자 핀, U 핀, 갈고리 핀, 꼬리 빗, 클립, 스프레이

작가/ 모티브 이미지	미로
〈그림 5-3〉 Bridget Riley 출처: https://pin.it/vdba7idqvkd_rbv	



미로 제작과정



브라운계열,
머리길이 60cm



① 뿌리부터 아이롱
으로 웨이브를 말아
준다.



② 프런트에 모근
백 콤을 넣고 입체
감을 위해 넓혀서
고정한다.



③ 웨이브의 면을 넓
히면서 연결시켜 릿지
를 잡아나간다.

④ 잡힌 릿지에 클립
으로 임시 고정하여
스프레이한다.

완성

미로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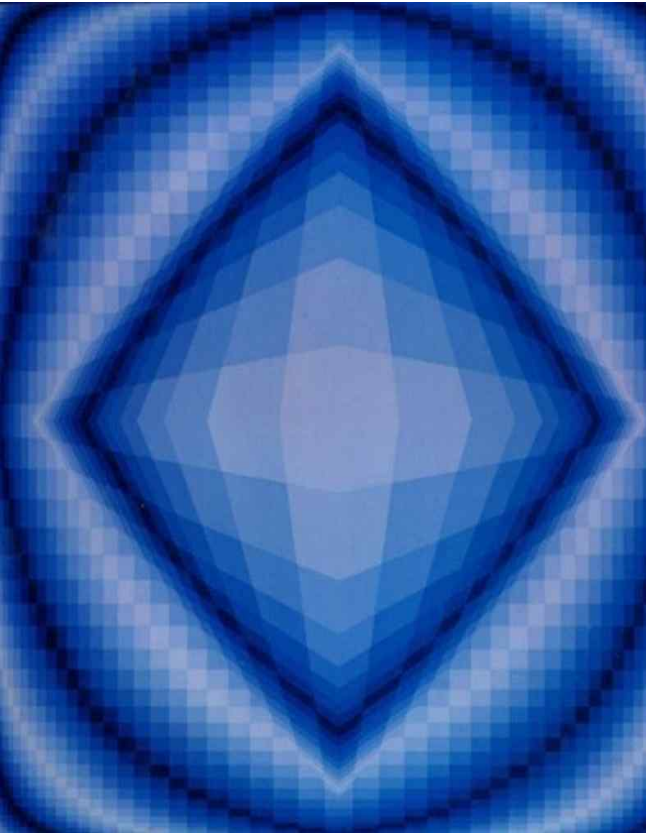


미로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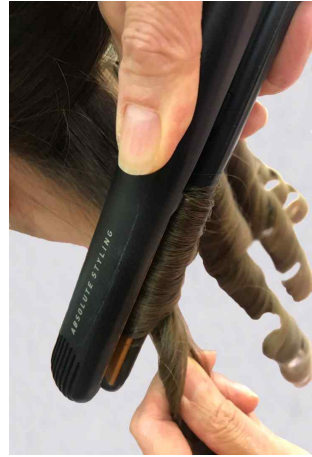
5.3.2 우주

- 1) 좌측의 사이드와 우측의 사이드를 남기고 내측을 묶는다.
피스를 덧대어 부족한 모양을 확보한다.
머리 솜을 감아 돌려 토대에 볼륨을 잡는다.
- 2) 전체 모발에 웨이브를 만든다.
머리 솜을 바깥 말음으로 비벼서 퍼듯이 면을 넓히면서 와인딩 한 후 모발의 가장자리를 우선으로 진행한다.
- 3) 묶음에서 섹션을 잡아 핀으로 고정한다. 긴 머리 솜을 넣고 와인딩 하면서 넓게 펴고 탑을 쌓아가듯 포인트를 바깥으로 먼저 배열한다.
- 4) 후두부를 깔끔하게 걷어 올려 고정하고 머리 솜이 노출되지 않게 면을 넓히면서 감추고 스프레이를 한다.

작가/ 모티브 이미지	우주
〈그림 5-4〉 Victor Vasarely 출처: https://pin.it/pxc5zla7mk hmur	



우주 제작과정



브라운계열,
머리길이 60cm

① 내측을 묶어
머리 솜을 감아
돌려 토대에
볼륨을 잡는다.

② 전체 모발에 매직
기로 웨이브를 만든다.



③ 머리 솜을 넣고
와인딩 하면서
포인트를 바깥부터
먼저 배열한다.

④ 머리 솜이
노출되지 않게
면을 넓히면서
감추고 스프레이를
한다.

완성







5.4 반복성 작품제작 의도 및 제작방법

Bridget Riley의 작품을 모티브로 선정하여 작품을 제작 하였으며 조형 요소인 선을 외곽하여 곡선으로 표현되었으며 점점 커지는 형태를 이용하여 확장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5.4.1 태양

옵티컬의 조형의 원리인 반복성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였다.

물결 웨이브의 강한 рит지를 표현하기위해 웨이브를 만들어 반복적인 느낌과 발랄한 느낌으로 연출하였다.

옵티컬아트 조형의 원리인 반복성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였다.

1) 묶고자하는 위치까지 쓸어 올린 다음 손으로 잡아 고무줄로 묶어 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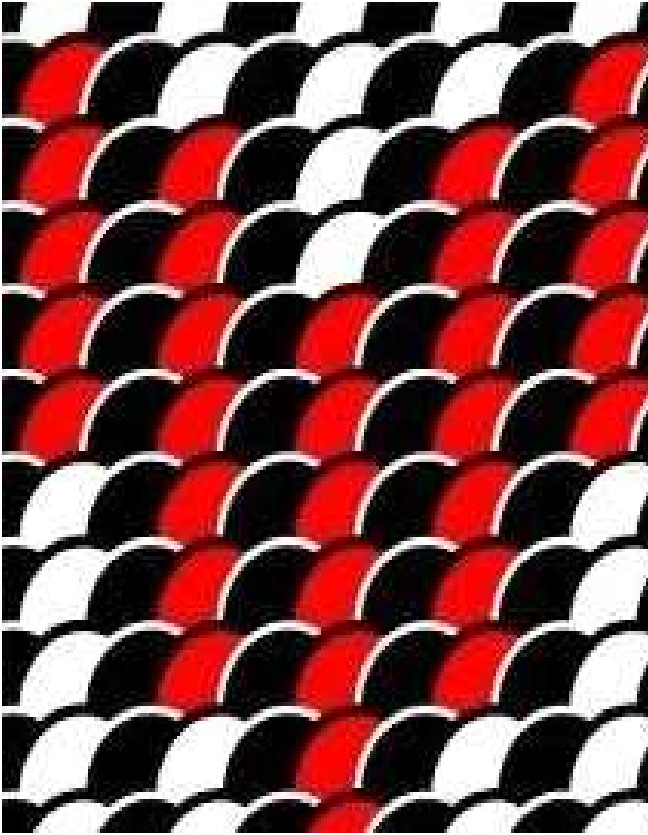
2) 아이룡으로 웨이브 만들어 웨이브의 탄력을 위해 클립으로 고정 한 후 스프레이를 한다. 볼륨을 위해 두피에 백 콤을 넣는다.

묶은 부분에 섹션을 잡아서 웨이브를 만들어주고 모근이 쓰러지니 않도록 모근에 튼튼한 백 콤을 넣고 나머지 전체 면에 백 콤을 넣어준다.

3) 면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벌린 중지 사이로 섹션을 당기듯이 잡아 손목을 회전시켜 부채꼴 모양을 만들어 두피에 밀착하고 클립을 고정한다. 여백을 매워가며 부채꼴 모양을 연출한다.

4) 반복 과정으로 부채꼴 모양의 링을 연결시켜 클립으로 고정 한 후 흐트러지지 않게 스프레이를 한다. 클립을 제거하고 갈고리 핀으로 고정한다.

사용도구 및 재료는 아이룡, 매직기, 다이렉트 고데기, 드라이기, 브러시, 피스, 머리 슝, 와인딩용 고무줄, 보비 핀, 일자 핀, U 핀, 갈고리 핀, 꼬리 빗, 클립, 스프레이

작가/ 모티브 이미지	태양
〈그림 5-5〉 Bridget Riley 출처: https://pin.it/5wzkhhn3zbrv7k	



태양 제작과정



브라운계열,
머리길이 60cm



① 목고자하는 위치
까지 쓸어 올린 다
음 고무줄로 묶어서
고정한다.



② 아이롱으로
웨이브를 만들어
웨이브의 탄력을
위해 클립으로
고정한다.



③ 손목을 회전시켜
부채꼴 모양을
만들어 클립으로
고정 후 스프레이를
한다.



④ 부채꼴 모양의
링을 연결시켜
스프레이를 한 후
갈고리 핀으로
고정한다.



완성

태양 정면



태양 측면



태양 후면



5.4.2 파도

1) 10레벨 브라운계열 모발에 아이롱으로 웨이브를 뿌리부터 강하게 말아준다. 릿지를 잡기 위해서는 컬의 탄력이 있어야 한다.

2) 볼륨을 형성하기 위해 웨이브 한 모발에 백 콤을 넣어준다. 웨이브를 묶음으로 연결시켜 물결 웨이브를 연출한다.

3) 엄지와 검지로 잡아 오른손 손가락으로 회전을 반복하면서 릿지를 만든다. 면이 좁을 때에는 손가락으로 비벼 면을 넓혀 잡아 클립으로 고정한다.

4) 완성해 놓은 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스프레이를 한 후 클립 대신 갈고리 핀으로 바꿔 고정한다.

작가/ 모티브 이미지	파도
〈그림 5-6〉 Victor Vasarely 출처: https://pin.it/4pzljnp2u2agg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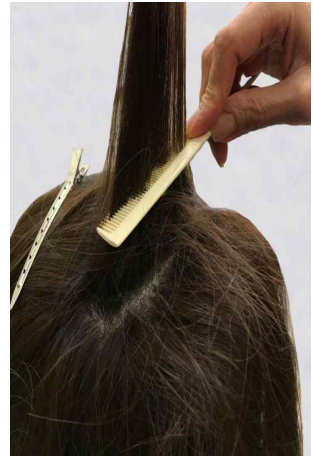
파도 제작과정



브라운계열,
머리길이 60cm



① 전체 모발에
매직기로 웨이브를
뿌리부터 강하게
말아준다.



② 볼륨을 형성
하기 위해 백 콤을
넣어준다



③ 손가락으로
회전을 반복하면서
물결 웨이브를
만들어 클립으로
고정한다.



④ 스프레이를 한 후
클립 대신 갈고리 핀
으로 바꿔 고정한다.



완성

파도 정면





파도 후면



5.5 확장성 작품제작 의도 및 제작방법

오페라의 작가 중 하나인 Bridget Riley의 작품을 모티브로 선정하여 작품을 제작 하였으며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중앙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며 빨려 들어갈 듯 한 원형의 점을 모티브로 하여 오페라의 조형의 원리인 반복성과 확장성이 오페라의 조형요소인 선이 표현되었으며 점 점 커지는 형태를 이용하여 확장성을 가조한 작품이다. 탑을 중심으로 갈수록 두께감이 더해져 점점 확장되는 표현을 하여 오페라의 조형원리인 확장성을 살렸다.

무겁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 넓은면에 변화를 넣어 보다 젊고 발랄한 이미지를 유도할 때 꼬기가 활용된다.

5.5.1 회전

오페라의 조형요소인 선이 표현되었으며 점 점 커지는 형태를 이용하여 확장성을 가조한 작품이다. 탑을 중심으로 갈수록 두께감이 더해져 점 점 확장되는 표현을 하여 오페라의 조형원리인 확장성을 살렸다.

무겁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 넓은 면에 변화를 넣어 보다 젊고 밝은 이미지를 유도할 때 꼬기가 활용된다.

1) 머리끝을 회전시켜 손으로 180도 꼬기를 진행한다.

2) 꼬아진 가닥을 손으로 받치고 텐션이 유지되도록 손으로 가볍게 잡는다. 끼운 손가락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축으로 회전시킨다. 손을 바꿔 잡으면서 섹션의 꼬인 선에 따라 직선으로 꼰다.

직선 상태에서 섹션 방향으로 탄력 있게 밀어서 볼륨을 잡아서 보비핀으로 고정 한 후 섹션 방향으로 빗 꼬리를 찌르듯이 넣어서 둥근 형태로 볼륨을 다시 잡아준다.

3) 네이프 부터 탑 까지는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고 다음 섹션부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꼬기를 진행한다. 정중선을 넘어서 위치에 고정한다. 가닥을 꼬아 위치를 균형에 맞게 디자인 한 후 클립으로 고정한다.

4) 최종적으로 스프레이 한 후, 클립 대신 갈고리 핀으로 바꿔 고정한다.

사용도구 및 재료는 아이롱, 매직기, 다이렉트 고데기, 드라이기, 브러시, 피스, 머리 슝, 와인딩용 고무줄, 보비 핀, 일자 핀, U 핀, 갈고리 핀, 꼬리 빗, 클립, 스프레이

작가/ 모티브 이미지	회전
〈그림 5-7〉 Bridget Riley 출처: https://pin.it/2mxfgyno4ti7vk	



회전 제작과정



브라운계열,
머리길이 60cm



① 머리끝을
회전시켜 손으로
180도 꼬기를
진행한다.



② 손가락을 돌리는 것
이 아니라 손목을 축으
로 회전시킨다.



③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꼬기를 진행하여
고정한다.

④ 스프레이 한 후,
클립 대신 갈고리
핀으로 바꿔
고정한다.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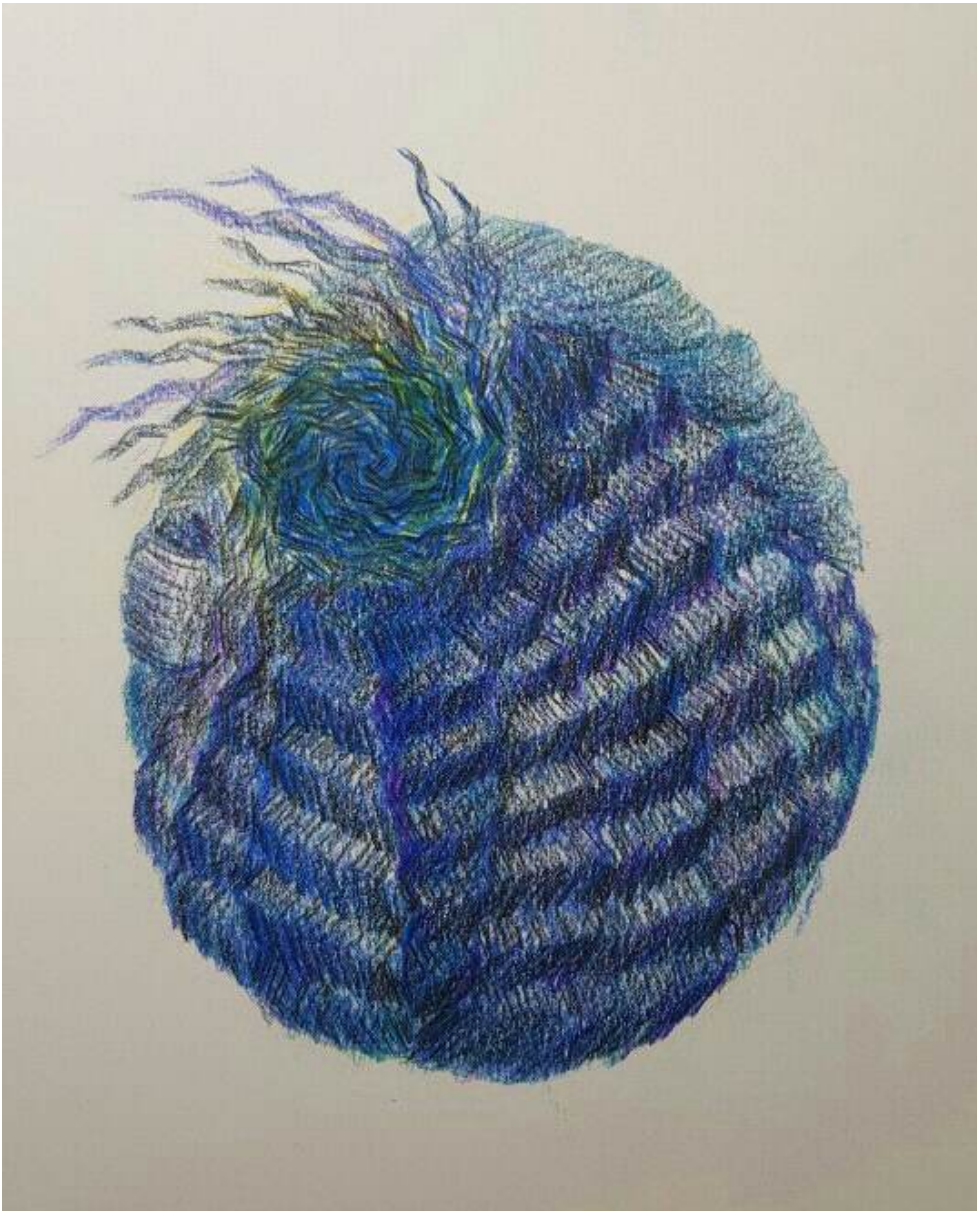




5.5.2 클립

- 1) 볼륨감을 위해서 뿌리부터 전체 모발을 다이렉트 고데기로 핵심 웨이브인 Z결은 만들어준다.
- 2) 뒷부분의 풍성한 볼륨감을 위해 모근에 튼튼한 백 콧을 넣은 후 슬 라이스 라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좌측과 우측을 겹쳐준다.
- 3) 반복적으로 겹쳐주면서 클립으로 고정하고 스프레이를 한다.
사이드 흐름으로 볼륨을 살려 마무리 연출한다.
- 4) 좌. 우로 겹치면서 끝머리 포인트를 와선을 잡아 마무리하고 고정 한다. 프런트의 남은 모발은 결을 잡아 연출하고 스프레이로 고정시킨다.

작가/ 모티브 이미지	클림
〈그림 5-8〉 Victor Vasarely 출처: https://pin.it/rma43gw k7mvni4	



클립 제작과정



브라운계열,
머리길이 60cm



① 모발에 다이렉트
고데기로 핵심
웨이브인 Z컬을
만들어준다.



② 슬라이스 라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좌측과 우측을
겹쳐준다.



③ 반복적으로
겹쳐주면서
클립으로 고정하고
스프레이를 한다.



④ 끝머리 포인트를
와선을 잡아
클립으로 고정 한 후
스프레이를 한다.



완성

플림 정면







VI. 결 론

본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 프랑스 철학자는 눈을 통하여 다양한 창조적 예술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각적 착시현상을 바탕으로 하는 옵아트의 조형 원리인 단순성, 반복성, 주목성, 확장성을 가지고 헤어디자인의 가장 우아한 분야인 업스타일 디자인에 주목하여 작품 연구를 진행 하였다.

시각적 예술과 헤어디자인의 두 분야를 연구함으로서 보다 창조적인 새로운 세계의 예술성을 제시하였으며 현실적 실용분야로서 그 연구 범위를 넓혔다.

작품 제작에 앞서 그동안 시도가 미비한 분야이기에 우선 국·내외 문헌 과 선행 연구를 기본으로 옵아트의 개념과 조형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으며 업스타일의 디자인 요소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후 현대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옵아트의 다양한 사례를 각 분야별로 고찰하여 작품제작의 실용적 측면까지 확인 하였다.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두 분야의 접목은 새롭고 독창적인 예술성을 탄생시키리라 확신 하였고 이를 모티브로 옵아트의 기하학적인 시각 예술을 업스타일의 디자인 요소에 적용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완성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첫째, 기존의 업스타일은 제한적 장소에서 자신의 분위기를 연출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소 일률적이며 단순한 디자인이 많았다. 또한, 그 예술적 의미와 다양성의 부족함을 느끼기에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이를 통하여 대중의 이목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제작 하여 창의적인 작품으로서 예술적 의미를 재해석 하고자 한다.

셋째, 앞선 옵아트의 적용 사례에서 보듯이 건축, 패션, 홈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옵아트의 기하학적 패턴이 사용되어 왔지만 헤어디자인 분야 특히, 업스타일에선 옵아트를 접목한 작품디자인 연구가 미비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업스타일 분야의 예술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옹아트의 기하학적인 조형의 원리를 업스타일 디자인에 적용하는 연구로 진행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옹아트는 시지각적 예술로서 기하학적 패턴이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여 뇌로 전달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착시 현상을 기반으로 작품을 표현하였다.

둘째, 옹아트의 기본적인 조형요소인 점, 선, 면을 바탕으로 반복성, 단순성, 주목성, 확장성의 조형의 원리를 이용하여 독창적 작품을 제작 하였다.

셋째, 옹아트와 업스타일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옹아트의 조형의 원리를 적용 시킨 업스타일 디자인을 제작함으로써 경험하지 못했던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다양한 디자인을 본 연구자는 표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인 옹아트의 표현양식을 업스타일에 적용하여 예술적 가치가 높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다양한 업스타일 디자인을 제작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이브닝 업스타일에 중점을 두어 작품을 제작하였으나 옹아트의 조형적인 요소의 표현은 머리 길이와 모양이 많아야 하며 짧은 머리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였다.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짧은 머리에 개성을 나타내고 편안한 자리에 서도 어울리는 옹아트를 적용한 디자인이 계속적으로 시도 되었으면 한다. 또한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함으로써 옹아트 업스타일이 미용예술분야에서 보다 풍부하고 아름다운 예술성을 창작 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향후 학문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하면서 실용적 측면까지 그 영역의 범위를 넓히는 옹아트 업스타일디자인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정윤슬. (2012). “옵티컬아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진. (2006). “점, 선, 면의 반복구성을 이용한 가구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전. (2018). “착시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승석. (2008). “착시의 예술인 옵아트(Op Art)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영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충현. (2007). “도제 조명등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 시각적 미술(Optical Art)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 (2014). “옵아트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텍스타일디자인 제품제작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한샘. (2014). “1960년대 한국 옵아트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원. (2005). “옵티컬 아트의 원리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병주. (2018). “옵아트의 특성을 활용한 헤어타투 디자인 개발”.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미리. (2013). “현대패션에 표현된 옵티컬일루전의 유형과 미적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성혁. (2004). “옵 아트(Op Art)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연구”. 계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영. (2014). “아카시 니할라니 (Aakash Nihalani)의 옵아트 조형원리를 응용한 고등학교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영. (2003). “착시(Optical Illusion)의 조형요소를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10).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단순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호인. (2002). “광고표현에 있어서 單純性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은. (2008). “반복적 선에 의한 공간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나리. (2011). “형태의 반복성을 적용한 입체조형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 (1997). “옴·아트 패턴을 응용한 직물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희란. (2015). “캘리그라피가 광고의 주목성과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진. (2014). “옴아트의 조형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소영. (2017). “옴아트를 응용한 인프라 패션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 (1995). “선과 면에 의한 착시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숙향. (2002). “업 헤어스타일의 디자인 開發에 關한 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용영. (2006). “미용사의 업 헤어스타일에 대한 인식과 교육현황 조사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재순. (2007). “업스타일의 유형에 따른 작품 분석”.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성진. (2007). “일본업스타일을 모티브로한 현대 퓨전 업스타일의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자. (2009). “조선후기 여성 헤어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퓨전업스타일”.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무. (2017). “업스타일 표현기법에 따른 선호도 연구”.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은. (2004). “선(線)을 강조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나현. (2014). “디자인 원리를 적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감성이미지 표현”.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재원. (2004). “자연의 유기적 형태 표현에 관한 헤어디자인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복심. (2007). “우리나라 업스타일의 변천 과정과 재현에 관한 연구”. 광주 여자대학교 미용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무. (2017). “업스타일 표현기법에 따른 선호도 연구”.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원. (2015). “형태분석법을 통한 미용장 기출 업스타일 디자인 분석 및 작품제작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환. (2005). “건축공간에서 창에 의한 관념적 공간 인지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 디지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민주. (2003). “건축 공간의 다양성 인식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연. (2010). “현대 패션에 나타난 FOLD 기법의 조형성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애. (2018). “옵아트 패턴을 활용한 헤어디자인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해선. (1992). “OP ART와 현대 패션에 관한 연구 : 선의 착시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해량. (2006). “네일아트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16). “브리짓 라일리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네일아트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뷰티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단행본

- 모리스 메를로-퐁티. 김정아 옮김. (2008). 『눈과 마음』. 서울: 마음산책.
- 김춘일, 박남희. (1991). 『조형의 기초와 분석』. 서울: 미진사.
- 시릴 바레트. 정미희 옮김. (1992). 『옵 아트』. 서울: 미진사.
-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1997). 『패션전문자료사전』. 용인: 한국사전연구사.
- 권상구. (1990). 『기초디자인 평면구성을 중심으로』. 서울: 미진사.
- 김인혜. (2008). 『기초디자인 점/선/면』. 서울: 미진사.
- 이건희, 김서영, 김형철, 이주미, 황정원, 권영민. (2012). 『패션과 뷰티디자인을 위한 토틸 코디네이션』. 파주: 광문각.
- 유송옥. (2005). 『服飾意匠學』. 서울: 修學社.

- 마조리 엘리오프 베블린. 정경원 옮김. (1996). 『디자인의 발견』. 서울: 도서출판 디자인 하우스.
- 강주희. (2013). “옵아트 작품을 응용한 헤어 아트 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2).
- 방우송. (2006). “착시를 이용한 예술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6(5).
- 노승석, 고창선, 박진완 (2010). “착시의 예술인 옵아트(Op Art)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작품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0(2).
- 김차현, 박문희. (2010). “옵아트를 이용한 여성복 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4).

ABSTRACT

A study on Up-Style design applying the
principles of Op Art

Kwak, Byung-Ok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Human has all different levels to observe even though it is same object and also has all various meanings depend on how they interpret about it. Information that they get it through unstable retina can cause visual aberration. It is called as illusion and Op Art (Optical Art) is a section of moulding using illusion.

The name of Op Art is an abbreviation of Optical Art and it is a field of Art which causes visual aberration based on geometric patterns. Since the end of 1950, the foundation of the development for Op Art had made through the process of visual education in the Bauhaus and Artists such as Victor Vasarely and Bridget Rilet led various chance in Op Art with their works based on geometric abstract and visual aberration.

Ways in expression of Op Art are contract, reiteration, gradation, outburst and etc of basic elements which are dot, line and surface, it expresses the form of euphemism and refraction and causes visual aberration. It classified confirmed unique moulding elements through precedent study into simplicity, attractiveness of colour, repeatability and expendability and studied in detail.

Up style is a section of hair design art which represents feminine beauty and elegance in the meeting or place requires formality and dignity. Up style has been developed variously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designed into wedding dresses, evening dresses and handbook (Korean traditional clothes) which represent the elegance and utilised to Semi-up style which suits with casual looks.

It was decided to graft moulding elements with up style which emphasises feminine beauty and is applied to numerous ways. First of all, it takes a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design element which are balance, unification, highlight and rhythm in designing up style.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e characteristics of op art and up style which are two sections in moulding art and researched how visual aberration is used in architecture, fashion, interiors, and nail art fields which geometric patterns of Op art are applied. The visual aberration of Op art applied in various fields has been creating a variety of artistic characteristics, and it seems that it will suggest more abundant and unique artistic characteristics in Up style.

The geometric pattern based on moulding elements of Op art focuses on the evening up-style emphasizing elegance and beauty and it could lead the artistic possibilities like below by preparing Op art work.

First, it was studied about moulding elements of Op art which are simplicity, attractiveness of colour, repeatability and

expendability and could be found the motif in the works of representative artists.

Second, it was attempted to construct the works by applying the moulding elements of Op Art to evening up-style which expresses the feminine beauty.

Third, the illustration was made based on moulding elements of Op art and the work was formed with a model who was set as hair length 60cm and abundant amount of hair to express up-style.

The unique design of up-style applying moulding elements to design elements of up-style was formed and the feminine beauty and elegance was expressed on it. Thu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visual art of Op art can be harmonised with evening up-style which is one of sections in hair design and on creativity and creative artistic values which can be reinterpreted that it was worth to try this kind of attempts in a design field.

[Keyword]Op art, Up-style, Moulding Elements, and Visual Aberration